

월간 SW 산업 동향

2012. 7월호



• Package Software • IT Service • Embedded Software • Open Source Software

CONTENTS

I. Summary	1
II. 월간통계	4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5
2. SW산업 관련 통계	7
III. 국내외 정책 동향	14
1. 국내	15
2. 해외	23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25
1. 부문별 시장 동향	26
2. SW 기업동향	39
V. 주요 리포트	46
1. 글로벌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 7	47
2.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 추구해야 할 전략과 방향	52
VI. 월간 SW 이슈 분석	56
1. 웨어러블 단말기 시대의 서막	57
2.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 SDN (SW정의 네트워크)	60

I . Summary



◆ 월간 통계

- 2012년 6월 SW 생산액은 2조 7,896억 원, 수출액은 1억 8,459만 달러
- 2012년 국내 ERP시장은 전년대비 6.0% 성장한 1천 355억 원 규모 전망 (IDC)
- 국내 CDN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5%씩 꾸준히 성장하여 2016년에는 약 1천79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IDC)
- 세계 IT지출 전년대비 3% 증가한 3조 6,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기트너)
- 세계 비즈니스 분석SW 시장, 전년대비 14.1% 성장한 317억 달러를 기록 (IDC)
- 2012년 일본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1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 4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IDC)
- 미국 벤처투자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IT 분야 홀로 증가 (다우존스)
- 일본 내 스마트 단말기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약 7.2조 엔, 고용 창출 효과는 33.8만 명으로 추산 (일본총무성)

◆ SW산업 국내외 정책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대책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간담회 개최, 「유망SW 창업지원 지원 프로그램」 발표, SW품질 개선을 통한 대중소 동반성장 지원 시동, SW 품질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IT유망 기술 청년창업 지원
- (행정안전부) 민·관 주요 웹사이트 ActiveX 2/4분기 현황조사 결과 발표, 국책·민간연구소 지식정보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에서 제공, 웹접근성 실태조사 민간 기업으로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계획」 발표, 음성, 문자, 가짜홈페이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 추진, 정보보호의 달 기념 다양한 행사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 (국토해양부) 국내 공간정보 기술의 해외 전파 가속화, 교통 정보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초·중·고교에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국민연금공단) 데이터보안인증(DQC-S)을 국내 최초로 획득
- (美) 감사원,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 추진현황 조사결과 발표, IPv6 전환 지침 및 로드맵 발표,
- (中)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사전 검열 강화
- (EU) 정보보호 작업반,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의견서 채택
- (유럽) 오픈 데이터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ERP) 국내 통신·제조·서비스 분야 주요 기업의 ERP 시스템이 잇달아 가동
- (CRM) 소셜네트워킹 기능과 결합한 CRM이 빠르게 발전
- (SCM) 국내 기업들의 SCM 경쟁력이 일본·대만·중국 등 아태지역 경쟁사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I) 빅데이터로 인한 비즈니스 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기존 기술 기술간의 통합 증가
- (IT서비스) IT서비스 기업들 잇따라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MEAP)' 솔루션 출시, IT서비스 기업들 신규 사업 진출과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자회사 흡수 합병 및 분리로 시너지 창출에 나섬,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

◆ 주요 리포트

- 「글로벌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 7」, LG경제연구원('12. 7)
 - 혁신을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 자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혁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음
-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 추구해야 할 전략과 방향」, KT경제경영연구소('12. 7)
 - 모바일 금융 플랫폼 도입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개방형으로 바뀌어야만 새로운 준비가 가능함

◆ 월간 SW 이슈 분석

< 웨어러블 단말기 시대의 서막 >

-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웨어러블 단말 경쟁시대 예고

<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 SDN (SW정의 네트워크) >

-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은 현재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등장

Ⅱ. 월간통계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가. SW 생산액 분석

- 2012년 6월 SW 생산액은 2조 7,896억 원,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
 - 패키지 SW 생산액은 3,75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0% 증가
 - 차세대 대규모 ERP구축 및 기업들의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수요 꾸준히 증가
 - IT서비스 생산액은 2조 4,13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
 -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연계한 신사업 모델을 강화 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 기록

월별 SW 생산액 추이(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패키지 SW	2012년	3,003	3,273	3,853	3,151	3,325	3,757
	2011년	2,668	2,769	3,163	2,915	2,851	3,211
	증감	12.5%	18.2%	21.8%	8.1%	16.6%	17.0%
IT 서비스	2012년	18,660	19,104	20,621	19,999	20,998	24,138
	2011년	17,334	17,949	20,789	19,022	20,675	21,911
	증감	7.6%	6.4%	-0.8%	5.1%	1.5%	10.2%
합계	2012년	21,663	22,378	24,474	23,150	24,323	27,896
	2011년	20,002	20,718	23,952	21,938	23,526	25,122
	증감	8.3%	8.0%	2.2%	5.5%	3.3%	11.0%

※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2. 7)

나. SW 수출액 분석

- 2012년 6월 SW 수출액은 1억 8,459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9% 증가
 - 패키지 SW 수출액은 6,61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0.6% 증가
 - 정보보호 및 헬스케어 솔루션 수출의 수출 지역 다각화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 기록
 - IT서비스 수출액은 1억 1,84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0.2% 증가
 - 전자정부의 꾸준한 수출 및 미국 의료 시장 진출 등으로 수출 성과 지속

월별 SW 수출액 추이(단위: 천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패키지 SW	2012년	20,220	21,817	25,824	26,505	45,568	66,174
	2011년	21,268	19,118	28,813	20,614	22,535	34,716
	증감	-4.9%	14.1%	-10.4%	28.6%	102.2%	90.6%
IT 서비스	2012년	77,183	79,643	96,418	121,334	151,916	118,413
	2011년	73,115	72,381	91,267	88,603	85,983	84,449
	증감	5.6%	10.0%	5.6%	36.9%	76.7%	40.2%
합계	2012년	97,403	101,460	122,242	147,839	197,484	184,587
	2011년	94,383	91,499	120,080	109,217	108,518	119,165
	증감	3.2%	10.9%	1.8%	35.4%	82.0%	54.9%

※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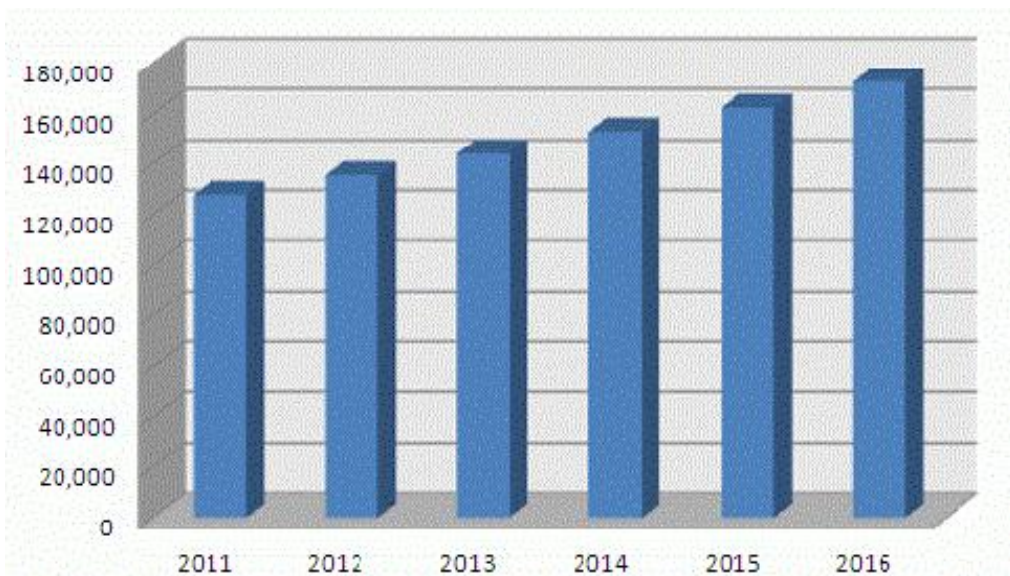
자료: KEA(2012. 7)

2. SW산업 관련 통계

가. 국내 ERP 시장 동향

- 2012년 국내 ERP시장은 전년대비 6.0% 성장한 1천 355억 원 규모 전망
 - (IDC) 2011년 국내 ERP시장이 전년도 수요 회복, 솔루션 투자 증가 흐름으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어감
 - 2011년 국내 ERP 라이선스 규모는 약 1천278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6.6% 성장
 - 주요 산업에 걸쳐 신규 수요가 늘고 중대형 시장서 솔루션 고도화, 개선 수요가 확대
 - 향후 시장은 주요 산업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오는 2016년까지 연평균 6.2% 성장으로 약 1천725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국내 ERP 애플리케이션 시장 전망 2012~2016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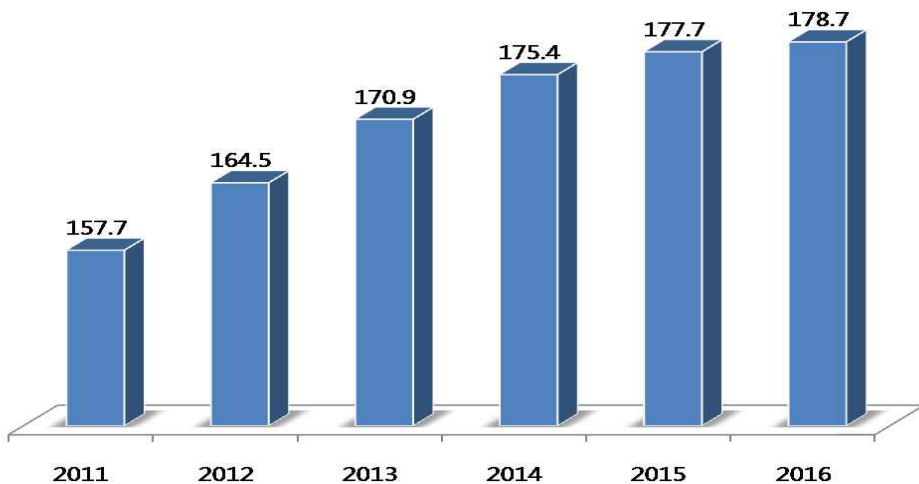


자료: IDC (2012. 7. 24)

나. 국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시장 동향

- 국내 CDN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5%씩 꾸준히 성장하여 2016년에는 약 1천79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IDC) 최근 콘텐츠 고도화 및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CDN 서비스 산업의 성장 기회가 확보됨
 -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증가로 해외망 이용이 증가하면서 CDN 서비스 도입 사례 역시 증가
 - 앞으로 CDN 서비스는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고 전반적인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
 - 전문 CDN 사업자 외에 통신사업자, 글로벌 CDN 서비스 사업자 등이 가세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CDN 서비스 시장 전망 (단위:10억 원)



자료: IDC (2012. 7. 27)

다. 세계 IT지출 동향 전망

- 세계 IT지출이 전년대비 3% 증가한 3조 6,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가트너)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4.4% 증가한 3조 7,860억 달러로 예상
 - 유로존 위기, 미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 등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IT 지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
 - 통신서비스 부문이 전체 IT 지출의 절반(46.5%)에 가까운 1조 6,860억 달러 예상
 - 통신장비 부문은 전년 대비 10.8%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뒤를 이어 기업용SW 부문이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세계 IT지출 전망 (단위: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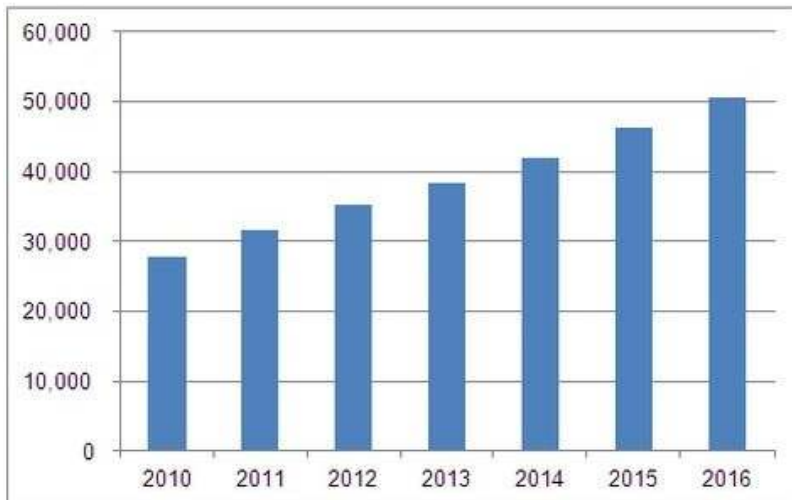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IT지출	성장률	IT지출	성장률	IT지출	성장률
컴퓨팅 HW	404	7.4%	420	3.4%	448	6.6%
기업용 SW	269	9.8%	281	4.3%	301	6.9%
IT서비스	845	7.7%	864	2.3%	905	4.8%
통신장비	340	17.5%	377	10.8%	408	8.3%
통신서비스	1,663	6.0%	1,686	1.4%	1,725	2.3%
합계	3,523	7.9%	3,628	3.0%	3,786	4.4%

자료: 가트너 (2012. 7. 9)

라. 세계 비즈니스 분석SW 시장 동향

- 세계 비즈니스 분석SW 시장, 전년대비 14.1% 성장한 317억 달러를 기록
 - (IDC) 2016년까지 연평균 9.8%로 성장하며 507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가 화두로 떠오르며 기업들의 투자 고려 대상 중 비즈니스 분석SW의 비중이 확대
 - 비관계형 데이터 관리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분석 SW에 대한 수요 증가
 - 관련 벤더들은 새로운 툴과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둔 기업 인수, 신기술 및 기존 기술간의 통합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비즈니스 분석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도로 숙련된 IT 및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

세계 비즈니스 분석SW 시장 전망, 2010-2016년



자료: IDC (2012. 7. 5)

마. 일본 IT서비스 시장 동향

- 2012년 일본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1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 4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IDC) 일본 IT 서비스 시장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동일본 대지진, 엔고 현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IT서비스 지출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년 감소세를 기록
 -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인한 일본 내 IT 지출 요인 감소, 클라우드를 통한 저가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이 전체 시장 규모 축소 원인으로 작용
 - 2012년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 인프라 최적화, 업무연속성 계획(BCP)* 등의 투자가 재개되어 4년 만에 증가세로의 전환 예상
 - ※ 업무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재난 발생 시 업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및 핵심 업무 지속 환경 조성을 위한 솔루션
 - 기업들의 일본 내 신규 투자 위축과 2012년 하반기 체감 경기 악화, 저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1% 전후의 저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며, 2016년경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일본 IT서비스 지출 규모, 2010-2016년



자료: IDC (2012. 7. 5)

바. 미국 벤처투자 동향

- 미국 벤처투자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IT 분야 홀로 증가
 - (다우존스) 2분기 미국 내 벤처투자 규모는 863건, 8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9% 감소
 - ※ 미국벤처캐피탈협회(NVCA)의 발표 자료에서도 각각 898건과 70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7.7%, 13.6% 하락
 - 인터넷·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IT 분야는 이 기간 동안 134건, 9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7%나 성장
 - 업체당 투자받은 금액은 실리콘밸리 지역이 700만 달러로 전국 평균인 500만 달러보다 많았음

미국 분기별 벤처투자 건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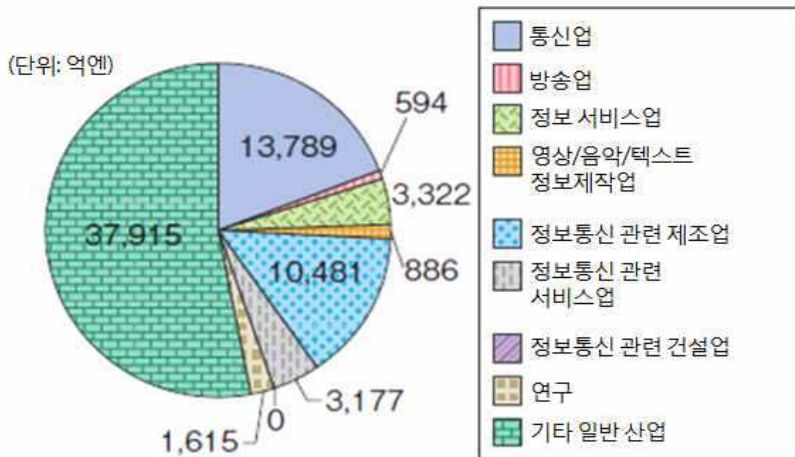
분기	벤처투자 건수	벤처투자 금액
2011 1Q	885	67억 3700만 달러
2011 2Q	1057	80억 600만 달러
2011 3Q	971	76억 9200만 달러
2011 4Q	921	70억 9400만 달러
2012 1Q	809	60억 4300만 달러
2012 2Q	898	70억 4400만 달러

자료: 미국 벤처캐피탈협회 (2012. 7. 23)

사. 일본 스마트 단말 보급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 일본 내 스마트 단말기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약 7.2조 엔, 고용 창출 효과는 33.8만 명으로 추산
 - (일본 총무성) 스마트 단말기 구입 비용, 통신 요금, 온라인 쇼핑, 디지털 콘텐츠 구입 등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3조 6,567억 엔으로 추정
 - 매출 향상 기업들의 원자재 구매 증가와 같은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포함한 전체 경제 효과는 7조 1,778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산업 부문별로는 통신업이 1조 3,789억 엔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1조 481억 엔), 정보 서비스업(3,352억 엔)이 뒤를 이음
 -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전 산업 부문에 걸쳐 3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사이버 공격 위협이 표면화되면서 정보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기업도 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스마트 단말기 확산에 따른 일본 내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단위: 억 엔)



자료: 일본 총무성 (2012. 7. 17)

Ⅲ.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가.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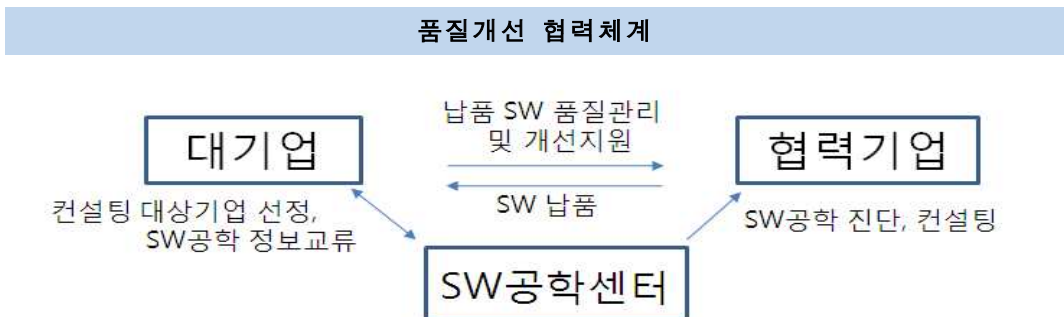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대책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간담회 개최 (2012. 7. 19)
 - SW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해 40여명의 SW기업인, 학계, SW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 그동안 발표된 SW 대책 및 SW산업진흥법 공포(5.23) 이후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업계·학계 등 SW 전문가들과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하기 위한 자리 마련
 - 참석한 SW기업 관계자들은 SW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조언과 함께 SW인재 양성, 신시장 창출 지원 등 다양한 SW산업 육성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 개정된 「SW산업진흥법」은 우리 SW생태계가 진정하게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관련 후속조치를 학계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 등 신시장 창출 지원, SW특성화 대학·대학원 기반구축 등 SW고급인재 양성, SW수출멘토링·해외정보화 컨설팅 지원 등 국내 SW산업 육성 관련 대책들도 꾸준히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정부는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SW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SW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면밀한 예측·분석과 SW 정책지원 체계의 종합적인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유망SW 창업기원 지원 프로그램」 발표 (2012. 7. 26)
 - SW 공모전 입상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이 보유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창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
 -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있음에도 마케팅 능력이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 SW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 및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 5.29~6.28일간 공모 실시, 32명의 예비창업자와 70개의 창업 초기 기업이 총 102개 과제를 신청. 신청 과제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한 프리젠테이션 평가 등을 통해 최종 10개 과제가 선정
- 분야별로는 모바일 앱 4건, SW솔루션 3건, u-러닝 2건, 임베디드 SW 1건 등 성장성이 높은 SW분야 중심으로 다양하게 선정됨
- 선정된 과제는 내용 보완 등을 거쳐 8월 초 계약을 체결하면 과제당 최대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
- 과제 수행 결과 산출된 SW자산은 금년 12월에 구축될 SW банк*에 등록하여 판매처를 찾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할 계획
- * SW 공급기업의 자산 정보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SW 수요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해주는 SW 자산 저장소

□ SW품질 개선을 통한 대중소 동반성장 지원 시동 (2012. 7. 27)

- 산업계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SW품질관리역량 제고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 이를 통해 국내 중소SW기업의 SW 생산성 및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대기업의 글로벌 상품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반 성장 효과를 기대
- 2013년 이후에는 금년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



- 정책의 일환으로 누리꿈스퀘어에서 LG전자-SW공학센터 간 협력사 품질개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 금번 MOU를 통해 LG전자는 협력기업에 대한 SW품질개선 지원과 함께, 정부와 NIPA가 수행하는 SW공학기술 확산 및 품질개선 사업에 대한 협력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SW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2012. 7. 12)

- 빅데이터 SW산업 육성전략 모색을 위해 '13th SW Quality Insight 컨퍼런스'(7월 11일(수))를 누리꿈스퀘어(상암동)에서 개최
 - 지경부는 그 동안 빅데이터 SW산업육성을 위해 R&D, 인력양성, 네트워킹, 정보교류 등을 지원해왔으며,
 - 이번 컨퍼런스는 그 동안의 빅데이터 관련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활용과 SW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최근 급변하는 IT트렌드를 반영하여 '12년 하반기 내 선도사업,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SW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빅데이터 SW산업 발전전략(안)



□ IT유망기술 청년창업 지원 (2012. 7. 20)

-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인재들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Seed money 지원을 실시
 -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특허 등 글로벌 경쟁력 있는 IT유망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계획 발표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을 자유공모 형식으로 신청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T유망기술을 엄선하여 기술 개발비를 지원

나. 행정안전부

□ 민·관 주요 웹사이트 ActiveX 2/4분기 현황조사 결과 발표 (2012 7. 13)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주요 웹사이트 200개(민간 100, 행정기관 100)를 대상으로 ActiveX 사용 현황을 조사
 -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웹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ctiveX에 대한 종속 해소를 추진 중
 - ※ ActiveX : MS社의 Internet Explorer에서만 동작되는 기술로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에 자동으로 설치를 지원해주는 비표준 기술
 - 정부 행정기관의 100대 웹사이트 중 73%는 ActiveX가 없거나 대체기술을 제공하여 3종 이상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 분야에서는 'KB국민은행'이 금융기관 최초로 ActiveX가 없는 웹사이트로 개편
 - 이번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하여 7월 중 대상을 선정하고 개선방안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

ActiveX 및 멀티브라우저 사용현황

구분		1/4분기	2/4분기	비고
ActiveX사용 사이트 수	민간	84	80	4개 감소
	행정	82	68	14개 감소
멀티브라우저 수(3종)	민간	-	31	1/4분기 미조사
	행정	-	73	

자료: 행정안전부(2012. 7. 13)

- 국책·민간연구소 지식정보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에서 제공 (2012. 7. 03)
 - 공무원들이 정책수립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식정보를 모아놓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에 국책·민간 연구소의 각종 연구 보고서를 제공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고서 뿐 아니라 앞으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도 현행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시의성 있는 정보 활용과 더불어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웹접근성 실태조사 민간 기업으로 확대 (2012. 7. 3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의해 내년 4월11일부터 웹 접근성 준수대상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 올해 정부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의 웹사이트 50개와 모바일 앱 50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
 -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위주로 실태조사 실시
 - 민간부분 웹사이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비점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개선권고를 통해 접근성 개선을 유도
 - 2005년 시작된 행안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그동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간 기업들의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 방송통신위원회

-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계획」 발표 (2012. 7. 12)
 - 우리나라의 웹 환경 개선과 인터넷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
 - ① 웹 기반의 공인인증서 표준화 추진, ② 5년간 HTML5 전문 인력 3,000명 양성, ③ 공공·민간 웹 사이트의 HTML5 전환 지원 등 총 15개의 정책 추진과제를 마련

- 음성, 문자, 가짜홈페이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 추진 (2012. 7. 6)
 - 「전자금융사기(피싱, Phishing) 대응반」을 구성하고 음성, 문자, 가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점점 교묘해지고 정교해지는 전자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
 - 「전자금융사기(피싱, Phishing) 대응반」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을 담은 종합대책(안)을 올 9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부처,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

- 정보보호의 달 기념 다양한 행사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2012. 7. 2)
 - ‘정보보호 달’인 7월에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포함한 다양한 범국민 정보보호 행사를 개최

정보보호의 달 방통위 주요 행사

행 사 명	일시	주 요 내 용
제9회 해킹방어대회	7.3	컨퍼런스 개최식에서 시상식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ICIS)	7.11	7.9일 까지 온라인(icis.kisa.or.kr) 등록
CEO 초청 정보보호 전략 간담회	7.12	기업 CEO 정보보호 인식제고
APISC 정보보호 교육	7.9~13	개발도상국 초청 정보보호 교육
청소년 IT보안 캠프	8.4~5	7.25일까지 온라인(camp-security.or.kr) 등록

라. 국토해양부

□ 국내 공간정보 기술의 해외 전파 가속화 (2012. 7. 16)

- 국내 공간정보 기술과 SW를 전파해 지적정보화 사업은 물론 국토 이용, 도시계획, 자원관리, 세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남미 주변 국가에도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 및 노하우를 소개하고 협력 MOU를 교환
 - 작년까지 세계은행의 1억 달러 규모 지원을 받아 9개 성에 지적정보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베트남 지적정보화사업 진출도 적극 모색

국내 공간정보 기술 해외 진출 주요 사례

진출국가	사업내용	참여기관
캄보디아, 모로코, 자메이카, 베트남,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측량 및 토지등록 사업, 지적 컨설팅, 교육 등	대한지적공사
콩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마스터플랜	신항항업, 웨택
몽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한국수출입은행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 SK C&C
자메이카	토지행정관리사업	대한지적공사
투르크메니스탄	전산관리시스템, 토지등록	대한지적공사

□ 교통 정보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 (2012. 7. 9)

- 공사 및 사고정보, CCTV 정보 등 교통 및 공공 주차장 정보 등 교통정보 원천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을 구축
 - 교통정보 오픈 플랫폼은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교통정보를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활용,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체계

마. 교과부

- 전국 초·중·고교에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2012. 7. 13)
 - '스마트교육 환경에 적합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안'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조만간 확정
 -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자유롭게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 실현을 위해 ISP를 추진

바. 국민연금공단

- 데이터보안인증(DQC-S)을 국내 최초로 획득 (2012. 7. 6)
 -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이후 관련 기술 적용 및 프로세스를 확립해 꾸준히 관리
 - 데이터보안인증은 조직의 DB를 대상으로 접근제어, 암호화, 등 DB 보안에 대한 기술요소 전반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

2. 해외

- 美 감사원,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 추진현황 조사결과 발표 (2012. 7. 11)
 - 대다수 정부 부처가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효과적인 도입 전략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예산관리국(OMB) 주도로 추진 중인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의 각 부처별 추진 현황을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진단·조사한 결과를 발표
 - ※ Cloud First: OMB는 2010년 12월, 정부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발표, 2012년 6월까지 각 부처별로 3개의 이상의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지시
 - '클라우드 퍼스트' 도입전략 평가
 - GAO가 7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20개의 클라우드 도입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세부 예산 산출, 현 시스템 전환 계획 등의 필수적 요인에 대한 고려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개 사업은 소요 예산 산정 없이 추진 중이며,
 - 14개 사업은 현행 시스템 폐쇄 및 이전 등의 전환 계획 마련 미흡
 - GAO는 각 부처에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 예산 도출, 기간별 도입 전략 제시, 달성 목표 수립, 현 시스템 전환 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美, IPv6 전환 지침 및 로드맵 발표 (2012. 7. 16)
 - 미국 연방정부 CIO 협의회는 미국 정부의 IPv6 전환 지침 및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2012년까지 이메일, 웹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모든 공공 서비스와 외부 서버를 IPv6 기반으로 전환 예정
 - 2014년까지 정부기관 내부 업무 및 내부 서버도 IPv6 기반으로 전환 예정

□ 中,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사전 검열 강화 (2012. 7. 9)

- 중국의 영상물 감독기관인 광전총국은 인터넷 동영상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반드시 사전 검열하도록 지시
 -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과도한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
 - 감독관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전 검열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시행할 예정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검열 가이드라인이나 미준수 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운영 웹 프로그램과 게시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열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조함
- 중국 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를 검열해오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유명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제한하고 있음
 -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적어도 18,000개 이상의 국내외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EU 정보보호 작업반,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의견서 채택 (2012. 7. 1)

- 클라우드 컴퓨팅은 많은 기업들과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점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언급
 -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이슈를 검토하고 EU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가 EU의 정보보호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함

□ 유럽 각국, 오픈 데이터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2012. 7. 10)

- 영국,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은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거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산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침
 - 영국,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이 각국의 상황에 맞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가. 패키지 SW 시장 동향

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국내 통신·제조·서비스 분야 주요 기업의 차세대 ERP 시스템 가동
 - KT·교원그룹·삼성·유니온스틸 등 대형 차세대 ERP시스템 가동
 - 각 최소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대규모 프로젝트이자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광범위 차세대시스템으로 구축되었음
 - 모두 ERP 개발과 동시에 모바일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 최근 확산된 스마트 기기 기반 모바일 오피스형 차세대시스템을 선보인다는 점도 특징

국내 통신·제조·서비스 분야 주요 기업의 ERP 시스템 구축 내용

기업	내용
KT	-BIT(Business & Information system Transformation)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으로서 ERP를 가동 -ERP를 중심으로 한 선진화된 경영 플랫폼 도입으로 똑똑하고 빠른 속도로 일하는 혁신을 추진
교원그룹	-재무·회계 등 그룹 전체 업무를 통합하는 차세대 ERP 시스템을 적용
삼성그룹	-1차 ERP 일류화 프로젝트 계열사들도 지난해 프로세스 혁신 및 시스템 개발에 착수, 올해 7월 첫째 주부터(2일) 시스템을 순차 가동할 계획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학습지 빅3' 기업이 ERP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

- 임직원 및 교사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신규 ERP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영업지원통합시스템을 갖추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

국내 통신·제조·서비스 분야 주요 기업의 ERP 시스템 구축 내용

기업	내용
교원	-ERP를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인 'KRP(Kyowon Revolutionary Procedure) 시스템' 가동을 시작 -SAP ER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경영지원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 연말까지 영업지원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
대교	-ERP 시스템 도입에 이어 지난해 스마트 모바일오피스시스템(MOS)을 선보여 디지털 학습 관리를 확산 -스마트 MOS는 ERP 등 핵심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학습지 교사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학습 이력 관리 등으로 학습 효과를 제고
웅진	-스마트폰을 보유한 6000여명의 학습지 교사들이 안드로이드OS 및 iOS 기반 모바일 학습관리시스템 '아이큐터'로 회원가입은 물론 학습 진도 관리, 상담이력관리 등을 하고 있음 -디지털 학습지와 연계된 모바일 학습 상담 프로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를 접목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준비하고 있음

자료: 각 사 보도자료

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소셜네트워킹 기능과 결합한 CRM이 빠르게 발전
 - (IDG) 모바일과 소셜은 모두 새로운 형태의 정보와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여 판매와 마케팅에 있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함
 - CRM의 활용되는 소셜네트워킹 기능은 많은 이용자들이 시스템에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 입장에서 더욱 유용한 자산이 됨
 - 고객 행동 모델을 개발하고, 조율하는데 있어서도 소셜네트워킹 기능은 큰 도움이 됨

3)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국내 기업들의 SCM 경쟁력이 일본·대만·중국 등 아태지역 경쟁사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트너) ‘아시아태평양지역 2012 SCM 경쟁력 상위 15개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SCM 경쟁력이 아태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선두이고, 2위는 현대자동차가 차지
 - 현대차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최근 몇 년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계 공장 및 법인 대상 SCM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활동과 그룹 차원 SCM 커뮤니티 활동이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임

가트너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SCM 경쟁력 상위 15개사

순위	기업
1	삼성전자(한국)
2	현대차(한국)
3	타타자동차(인도)
4	레노버(중국)
5	화웨이(중국)

6	올워쓰(호주)
7	도요타(일본)
8	아수스텍컴퓨터(대만)
9	현대중공업(한국)
10	세븐앤아이홀딩스(일본)
11	혼다(일본)
12	캐논(일본)
13	LG전자(한국)
14	코마츠(일본)
15	플렉스트로닉스 인터내셔널(싱가폴)

자료: 각 사 보도자료

4) BI(Business Intelligence)

- 2011년 세계 BI 및 분석툴 시장은 전년대비 13.2% 성장
 - (IDC)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비즈니스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분석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 빅데이터에 집중된 관심과 더불어 비즈니스 분석 SW는 주류 시장으로 진입 중
 - 특정 기술 요소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반면,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논의 및 전반적인 활용목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IT서비스 시장 동향

- IT서비스 기업들 잇따라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MEAP)' 솔루션 출시
 - MEAP분야는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일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화두가 되면서 떠오르는 분야
 - 모든 기종의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모바일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MEAP 솔루션은 전통적으로 미들웨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라클, IBM, 사이베이스 등의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주도
 - 최근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워크 유형에 맞게 대형 IT서비스 기업이나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국내 MEAP 솔루션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

가트너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SCM 경쟁력 상위 15개사

기업	내용
삼성SDS	-단순한 MEAP 솔루션 뿐 아니라 각 기업 환경에 맞게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EMT)'은 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 최적화된 인프라를 포괄하는 방법론 -EMT 방법론과 더불어 SEMP를 기반으로 한 기업형 모바일 솔루션인 '모바일 데스크'도 제공
LG CNS	-MEAP 솔루션인 '모바일통합솔루션'을 출시 -모바일통합솔루션은 LG CNS 정보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으로, B2B 뿐 아니라 B2C 영역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게 특징
SK C&C	-'넥스코어 모바일(NEXCORE MOBILE)'을 앞세워 MEAP 시장을 적극 공략 -넥스코어 모바일의 강점은 고객·영업·IT인프라·IT애플리케이션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모바일 환경 구축이 가능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IT서비스 기업들 신규 사업 진출과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자회사 흡수 합병 및 분리로 시너지 창출에 나섬
 - 공공 시장에서 IT서비스 기업들이 입지가 좁아지면서, 추가적인 산업 구조 개편과 자회사 구조 조정 이루어짐
 - IT서비스기업들의 이런 변화를 통해 신규 사업 진출 및 핵심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세움

IT서비스업체들의 핵심사업 변화 내용

기업	내용
삼성SDS	-자회사 EXE C&T 흡수 합병을 완료하고 물류 공급망관리(SCM) 사업 조직을 확대 -물류 컨설팅 인력 및 솔루션 기술을 확보, 하반기 이후 자체 SCM 솔루션 '첼로'를 비롯한 컨설팅 사업도 강화
대우정보시스템	-IT컨설팅 자회사인 넥스젠엔씨지를 분리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메타넷 자회사가 되면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정보화전략수립(ISP) 사업 등 40억 미만 사업에서 강점을 살림
LG CNS	-LG CNS 자회사 비즈테크앤엑티모도 LG CNS 출신 대표가 선임된 후 시너지 제고 방안이 마련 -상반기부터 LG CNS와 일본 시장 진출 등 협업을 강화
SK C&C	-인수한 SK엔카와 해외 온라인 중고자동차판매 시장 공략을 위해 공동으로 각 부문별 전사 과제를 추진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
 - 2013년부터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IT서비스 기업들의 시장 진출 제한
 - 내년 이후에도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가능한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공공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조직 개편과 기반 기술 강화, 인력 충원에 나섬
 - 대우정보시스템·쌍용정보통신·KCC정보통신·현대BS&C 등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 정보화 시장 확대 대비 현황

기업	조직 및 인력 확대	기술 기반 강화
대우정보 시스템	-공공영업팀, 공공서비스팀 -> 공공영업팀, 공공사업1팀/공공사업2팀으로 확대 개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센터' 창설
쌍용 정보통신	-공공IT서비스사업본부 공공IT서비스사업팀 ->연내 사업팀 확대 개편 검토중 -인력 재배치 및 충원중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제안요청서 (RFP) 상세화,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PMO) 의무화 전사 교육 실시
KCC 정보통신	-공공 사업을 조준해 리스크 완화 위한 팀을 '품질경영실'로 강화 -경영전략회의 통해 구체적 전략 수립	-기술자 대상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교육 실시
현대 BS&C	-IT부문 산하 공공사업본부 신설 -인력 재배치 및 충원 중	-전문가 영입 및 공공 정보화 적용 가능 신기술 영역 강화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신사업 시장 동향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클라우드가 게임, 내비게이션, 오피스 프로그램, 고객관리 등에 활용
 - 데이터를 PC나 USB 등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파인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3D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iQ 3D 3000'을 출시, 빠른 경로탐색 지원 및 최신 지도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
 - (SK텔레콤) 티맵(T-map)과 연계된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 '클라우드 CRM' 출시. PC와 스마트폰, 태블릿PC와 연동, 지역별 고객 분포도, 고객위치 파악, 트렌드 분석을 지원
 - (LG유플러스) 다운로드나 설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무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PC, 스마트폰, 인터넷(IP)TV 등에서 원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선보임

2) 모바일(Mobile)

- 국내 사무용 SW 기업들이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워크 시대를 선도
 - 한글과컴퓨터, 인프라웨어, 더존비즈온 등은 자사의 인기 콘텐츠와 SW를 응용, 모바일용 앱으로 제작하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음
 - 인프라웨어가 출시한 '폴라리스 오피스'와 한컴이 선보인 모바일용 오피스 애플리케이션 '한컴오피스 한글 iOS 에디션' 유니버설 앱은 이미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인기 앱으로 자리매김한 상태
 - 더존비즈온은 엔터프라이즈용 통합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비즈박스 넥스트'를 출시하고 레퍼런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

사무용 SW 기업들의 모바일 앱 출시 내용

기업	내용
인프라웨어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 '폴라리스 오피스'의 iOS용 앱은 현재 국내 앱스토어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순위 2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음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대한 열람·편집 기능과함께 PDF, JPG, 한글 문서 파일 열람기능과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프레젠테이션 문서 열람 기능도 지원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한글 iOS 에디션'은 국내 앱스토어 유니버설 앱 전체 카테고리에서 5위에 랭크돼 있음 -한글 문서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 프로그램 문서에 대한 파일 열람과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한글 문서와 MS오피스 파워포인트 문서, 엑셀 문서, 어도비 PDF 파일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파일에 대한 읽기 기능을 지원
더존비드온	-클라우드 기반 통합커뮤니케이션(UC) 솔루션 '비즈박스 넥스트'를 통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룹웨어 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즈박스 모바일'을 제공 -메시지 전달기능, 결재, 팩스 관리, 업무현황 파악 기능 등을 제공

자료: 각 사 보도자료

3) SNS(Social Network Service) & Social Media

- 우리나라 소셜앱이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카카오톡과 비슷한 종류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 KTH의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푸딩, 투' 등 우리나라 소셜앱이 아시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우리나라 SNS 업체들이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잇달아 진출해 아시아의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음

해외 진출한 한류 앱 특징

서비스	운영업체	가입자 수(명)	해외 가입자 비율	주요 서비스 지역	특징
라인	NHN	5,000만	60%이상	일본·대만	무료 메신저 및 통화
카카오톡	카카오	5,300만	20%이상	미국·일본	사진SNS 카카오스토리 연계
푸딩, 투	KTH	250만	30%이상	태국·싱가포르	사진SNS, 푸딩시리즈 3,000만 다운로드
보들북	삼성출판사	250만	30%이상	일본·대만	일본 교육 부문 1위 차지

자료: 각 사 보도자료

4) 검색서비스

- 인터넷·게임·음악 포털들이 최근 사이트 개편 작업에 나서면서 서비스 강화에 주력
 - 정보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친숙한 사용자환경(UI)으로 전환, 소셜 기능을 강화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NHN) 여행자 후기로 구성되던 ‘윙버스’를 개편, 국내·외 여행정보 60만건으로 ‘네이버 여행 윙버스’(wingbus.naver.com)를 선보이고, NHN이 운영하는 ‘한게임’은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가 자주하는 게임이 전면에 보이도록 메인페이지를 바꿈
 - (다음커뮤니케이션) ‘뮤직 검색’ 서비스를 개선, 검색어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면서 원곡, 인기곡, 인기곡 순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 (SK커뮤니케이션즈) 지인의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영역을 네이트 메인 페이지에 전면 배치하여, 지인들의 활동 소식을 시간 순으로 확인 가능

- (CJ E&M) '엠넷닷컴' 메인페이지의 UI를 아티스트 중심으로 바꿔서, 아티스트 관련 뉴스,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뿐 아니라 아티스트가 남긴 트윗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함

5) 빅데이터

- 상반기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빅데이터 시장 공략이 주를 이루었지만, 국내 업체들도 자신만의 강점을 살린 제품으로 시장 진출
 -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다양한 사례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을 지녔으며, 국내 시장에 빅데이터 전도사 역할을 해옴
 - 기존 데이터 분석에 강했던 SAS, 테라데이타를 비롯해 MS와 오라클, SAP, 한국IBM, HP 등은 HW와 SW 기능을 결합한 제품들을 선보임
 - 국내 업체들은 기존 검색 주력 업체인 와이즈넷, 코난테크놀로지, 다음소프트를 비롯해 위세아이텍, 솔트룩스 등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제품을 선보이거나 준비 중
 - 대형 IT서비스 업체 중에서는 LG CNS가 빅데이터 관련 별도 조직을 출범시켰으며 삼성SDS, SK C&C는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제품 출시 및 활동이 이어질 전망

라. 임베디드SW 시장 동향

- 모바일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한 ‘스마트 카’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차량용 임베디드 SW 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
 - 모바일 솔루션 업체들은 최근 차량용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에 관련 솔루션을 공급했거나 공급 논의를 진행 중
 - (오비고코리아) 현대차에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공급했으며, 최근 선보인 신형 싼타페와 제네시스용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블루링크’에 이 웹 브라우저를 적용
 - (유비벨록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제어 및 주차위치 확인, 목적지 전송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현대차 ‘블루링크’에 공급 완료, 앞으로 차량용 앱 스토어도 개설할 예정
 - (MDS테크놀로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을 연결해 검색과 통화, 애플리케이션 조직 등이 가능한 솔루션인 ‘미러링크’ 출시
 - SW 업체들이 스마트 카 시장 공략은 모바일 환경을 자동차 내에서도 구현하길 원하는 시장의 요구와 SW업계의 성장을 위한 다변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마. 공개 SW 시장 동향

- 공개SW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시장 수요를 선도한다는 계획으로 '공개소프트웨어클라우드협회' 출범
 - IT산업의 패러다임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동하면서 공개SW의 활용과 신기술 개발이 그 중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협회 설립
 - 향후 공개SW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지원 및 컨설팅 협력,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업 참여 및 민간 사업 창출, 국내외 공개 SW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활발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
 - 국내 공개SW 기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로간의 협업을 통해 공개SW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가. 비즈니스 및 제품 동향

- (안랩) 개인정보보호 포털 ‘안랩 프라이버시 랩’ 오픈
 -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와 정보를 웹 상에서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포털 서비스를 오픈
 - 콘텐츠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탐지부터 조치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안랩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의 구매 고객에게는 별도의 ‘프리미엄 존’ 서비스를 제공

- (어드밴텍) 산업용 클라우드 ‘수시엑세스서비스(SUSIAccess) 2.0’ 출시
 -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어드밴텍 임베디드 컴퓨팅 제품에 탑재됨
 - 원격관리를 위해 모든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그를 제공하며 에러 발생시 경고 팝업과 이메일 경고를 통해 자동으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림

- (와이즈넷) 빅데이터 검색솔루션 ‘서치 포물러원 V5’ 출시
 -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대용량 통합검색기술, 시맨틱검색기술, 마이닝기술, 중복문서처리기술 등이 적용된 솔루션
 - 초고속 효율적 색인을 통한 검색솔루션 기능 향상 및 정확한 검색결과 제공, 검색 정확성 향상 등 주요 특징 지님

- (LG CNS) ‘스마트그린시티’ 통합솔루션 출시
 - 빌딩 한 채부터 대규모 도시까지 손쉽게 스마트 그린이화 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 공식 출시
 - 스마트 그린 솔루션은 스마트 그린 시티를 효과적으로 운영 및 제어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운영체제(OS) 역할을 함

- 빌딩이나 도시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광고 미디어, 지능형 조명,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등 단위 솔루션으로도 제공
 - 개인용 가상 PC 서비스 ‘클라우드PC(CloudPC)’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23일부터 9월 30일까지(10주간) 일반인 500명에게 베타 서비스를 제공
 - 윈도, 맥,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가상 PC에 접속, 윈도 환경 및 MS 오피스 SW를 사용 가능
- (SKT) 실버 헬스케어 ‘호드림텔레케어’ 서비스를 출시
- 응급호출기, 동작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고령자의 활동 상황을 원격으로 체크하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보호자나 병원에 신속하게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
 - 복지IT 전문기업 하이디어솔루션즈와 헬스케어 전문기업 녹십자 헬스케어와 공동 개발한 서비스
- (굿닥) 모바일 의료 전문 서비스 ‘굿닥 2.0’ 출시
- 모바일 의료 정보 서비스 ‘굿닥(GOODOC)’이 맞춤 검색 기능과 1:1 상담 기능을 보강한 2.0 서비스를 시작
 - 모바일과 웹 상에서 의사·병원 정보를 검색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 및 예약을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 (파인디지털) 클라우드 기반 3D 내비 ‘파인드라이브 iQ 3D 3000’ 출시
- 파인디지털은 실시간으로 경로와 목적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클라우드 기반 3D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iQ 3D 3000’을 24일 출시
 - 스마트폰 테더링을 통해 최신 3D 전자지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경로탐색 즉시 빠르게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

2012년 6월 국내 SW 주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현황

업체명	출시 제품	비즈니스 전략
안랩	프라이버시 랩	-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와 정보를 웹 상에서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
어드밴텍	수시엑세스 2.0	- POS, 키오스크, 트랜잭션 기반의 공항 체크인 시스템, 지도 및 안내 표지 시스템, ATM,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용 PC, 의료용 진단 장비 등에 적합한 제품
와이즈넷	서치 포물러원 V5	- SaaS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제공, 중소기업들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
LG CNS	스마트 그린 솔루션	- 에너지 비용을 절감, 컴퓨터 한 대로도 유지보수가 용이한 통합운영 환경을 갖추게 됨
	클라우드PC	- PC방, 카페, 공항 등 어느 공용PC에서도 기기와 운용체계에 상관없이 나만의 가상 PC에 접속 가능
SK텔레콤	효드림텔레케어	- 침실, 화장실, 주방 등에 설치된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이용자의 활동량을 휴대폰 문자나 PC, 스마트폰으로 보호자가 매일 확인 가능
굿닥	굿닥 2.0	- 모바일과 웹 상에서 의사·병원 정보를 검색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 및 예약 가능
파인디지털	파인드라이브 iQ 3D 3000	- 스마트폰 테더링을 통해 최신 3D 전자지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경로탐색 즉시 빠르게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
시큐아이닷컴	시큐아이 엠에프아이	- 애플리케이션 제어와 안티-분산서비스거부(DDoS), 안티 봇넷 기술이 융합,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응 가능

카세야	카세야 SaaS 번들	- IT관리자들이 IT자동화 기능을 활용,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하는 '브레이크 픽스(Break-Fix)'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펜타시스템	자이퍼 매뉴얼 가판대	- 모바일 기기를 통해 외부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손쉽게 자이퍼 매뉴얼 시스템에 접속
마크애니	프라이버시 시큐레디	- 기업 및 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전자문서에 DRM을 적용,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원천 차단 가능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나. 해외 진출

- 국내 정보보호 업계가 일본에 의존하던 해외수출 비중을 다각화
 - 그동안 국내 정보보호 업계 수출 비중은 60% 이상이 일본에 편중
 - 웨어밸리·시큐아이닷컴·윈스테크넷·파수닷컴·마크애니 등 국내 보안업체들이 하반기 수출지역을 동남아, 유럽, 남미, 중동 등으로 확대

국내 정보보호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내용과 일본 수출 현황

기업	해외시장 진출 내용	일본 수출 비중
웨어밸리	-영어·일본어·대만어·중국어 등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공략에 나섬 -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현지 채널도 구축	88%
시큐아이닷컴	-동남아 지역을 진출한 뒤 2013년부터는 유럽·북미 시장에 진출	60%
윈스테크넷	-수출 지역을 일본에서 말레이시아, 르완다 등으로 확대	95%
파수닷컴	-북미지역에 수출을 집중	85%
마크애니	-중동, 동남아 지역을 진출에 주력	6%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국산 헬스케어 솔루션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전
 - 미국 정부가 총 190억달러(약 24조원)를 전자건강기록(EHR) 확산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헬스케어 솔루션 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
 -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비즈니스온, 삼성SDS 등 국산 헬스케어 대표 주자들이 최근 들어 미국 시장에 전극 진출

국내 업체들의 미국 EHR 시장 진출 내용

기업	내용
비트컴퓨터	-국내 의료 솔루션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전자의무기록(EMR) 시장에 진출 -미국시장을 목표로 개발한 EHR 솔루션인 '차트플러스'는 미국 내 인증제도인 'CCHIT'와 'ONC'를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모두 획득하는 성과를 냈
삼성SDS	-미국 남부지역 병원 네트워크 크리스투스 헬스(CHRISTUS Health)와 10년간 EMR 솔루션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	-자체 개발한 Mchart EMR이 지난 5월 미국 보건성으로부터 의미있는 사용수준 인증(Meaningful Use Certification)을 획득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현지 서비스에 들어감
유비케어	-미국 전자차트(EMR)업체인 PlatinumMD 인수를 통해 미국 EMR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미국 EMR 시장을 놓고 국내 업체들의 공략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국내 SW기업의 해외 시장 활약 돋보임
 - 알티베이스, 알서포트, 인피니트헬스케어는 국내 열악한 SW산업 환경에도 해외시장 활약이 선보임
 - 국내 SW 산업규모는 전 세계시장의 약 2.2%에 머무는 수준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보임

해외시장에서 활약하는 SW기업의 매출액

기업	특징	연도별 매출액		
		2009년	2010년	2011년
알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기업으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 선전	140억 원	150억 원	160억 원
알서포트	원격지원 솔루션 기업으로 연간 매출 중 약 50%는 해외에서 나옴	97억 원	95억 원	132억 원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기업 간 협력 및 제휴 동향

- (포스코) 포스코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스피아 3.0' 프로젝트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에 삼성SDS가 참여를 제안
 - 삼성SDS는 1000억여원을 투자해 자체 개발한 물류 시스템 '첼로(Cello)'를 포스코의 신규 물류 시스템 중 하나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 첼로는 삼성SDS가 개발한 통합 물류·공급망관리(SCM) 플랫폼으로 지난해 말 물류관리 모듈 개발을 완료한 후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음

-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의료 솔루션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와 제휴해 DB암호화 보안솔루션 번들공급 제휴를 맺음
 - 펜타시큐리티 DB암호화 보안솔루션 '디아모'를 인피니트헬스케어 전용 번들로 채택해 각 제품 개발과 유지보수를 지원
 -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설계 및 의료 솔루션에 특화된 제품 공동 개발 등을 협력

- 대면적 터치인식 기술과 가상데스크톱(VDI) 기술을 각각 보유한 벤처기업이 협력해 차세대 스마트교육용 스마트터치PC를 공동 개발

- 아이카이스트와 이나루티엔티는 최근 대면적 터치인식기술 기반 클라우드 PC 및 스마트 교육 솔루션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
 - 아이카이스트의 대면적 터치인식 기술을 이나루티엔티의 가상 데스크톱(VDI) 기술 및 제로 단말기와 융합해 차세대 스마트 교육 시장에 최적화 된 23인치 스마트터치PC(올인원 PC)를 공동 개발

라. SW 품질 동향

□ 2012년 7월 GS인증 획득 현황

2012년 7월 GS인증 획득 기업 및 제품 현황			
기업명	대표자	제품명	특징
쉬프트웍스	홍민표	B-가드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소프트웨어(SW)를 보호하는 솔루션으로 역 공학방지, SW 코드 패치 방지, 메모리 해킹 방지 등의 주요 기능을 제공

자료: 각 사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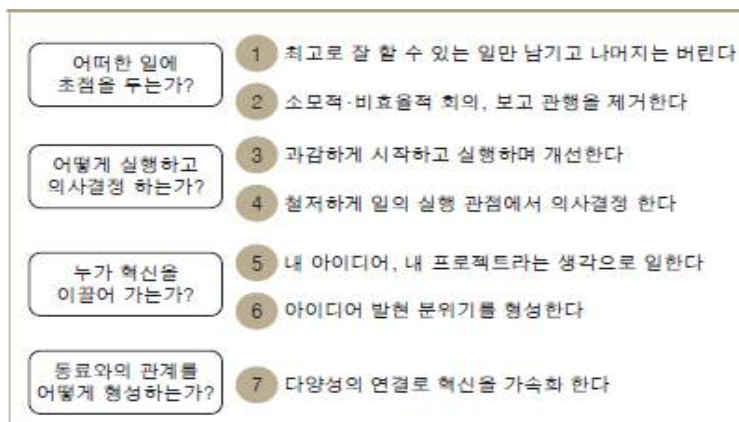
V. 주요 리포트



가. 개요

- 혁신을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 자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음
 - 글로벌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혁신을 추구하고 스마트한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주요 기관들(Booz & Company, Fastcompany.com, Forbes誌, Businessweek誌 등)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 명단을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기업(Apple, Google, Intel 등)의 일하는 방식을 연구
 - 4가지 측면 -어떠한 일에 초점을 두는지, 어떻게 실행하고 의사결정하는지, 혁신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누구인지,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서 분석하고 일하는 방식의 특징을 도출

글로벌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



나. 집중

-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 애플(Apple)은 ‘이 세상을 이끄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사상에,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선별하고, 선별된 일에 최고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
 - 일의 선별과 집중을 통해, 애플은 제품 라인업(Line-up)을 단순화하였으며, 임원이 1년 동안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통상 3개 정도에 불과
 - ※ 스티브잡스는 애플 복귀 후 당시 제품의 70%를 제거하고 데스크톱과 포터블 등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소수의 제품에 집중

다. 제거

- 소모적·비효율적 회의, 보고 관행을 제거한다.
 - 간결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지향
 - MS CEO 스티브발머는 스탠드업(Stand Up) 미팅을 추진, 간결하고 집약적인 회의를 위해 참석자들이 선 채로 회의를 진행하며 1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함
 -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양
 - 도요타(Toyota)의 전 CEO, 카수아키 와타나베(Katsuaki Watanabe)는 2008년 구성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서를 만들기 위한 파워포인트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림
 - GM의 CEO 프리츠 헨더슨(Fritz Henderson)은 외형에 치중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타가 가득한 공문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직접 발송

라. 실행

- 과감하게 시작하고 실행하며 개선한다.
 - 인텔(Intel)은 일의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을 시행하면서 학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인텔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분석과 점검으로 인한 실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맞는가를 실제 일을 통해 확인하도록 장려

마. 결정

- 철저하게 일의 실행 관점에서 의사결정 한다.
 - 구글의 래리 페이지는 CEO로 복귀 후 거대하지만 신생기업처럼 빠른 기업의 면모를 되찾기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
 - 우선적으로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회의방식을 개혁
 - ※ 회의 개혁의 원칙은 ①'모든 회의에는 1명의 명확한 의사결정권자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의사결정권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 회의 하지 않는다', ②'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작정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뭔가 신속하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된다면, 즉각 회의를 열고 의사 결정하라', ③'회의에는 반드시 10명 미만의 사람만 참석시키라', ④'회의 참석자는 반드시 발언해야 한다.' 등임

바. 주도

- 내 아이디어, 내 프로젝트라는 생각으로 일한다.
 - 구글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20% Time'이라는 제도를 운영

-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투자
- ※ 구글맵(Google Map)은 '20% Time'프로젝트에서 출발하여 아이디어의 구상에서 출시까지 불과 8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음
- 3M 역시, 연구원들이 자기 시간의 15%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신상품·신기술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 15% 시간의 활용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한 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달러 이내에서 일정 금액의 펀드를 제공해 주는 '제너시스 그랜트(Genesis Grant)' 제도를 활용

사. 발현

- 아이디어 발현 분위기를 형성한다.
 - 구글은 구성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제기되고 공유될 수 있는 통로로서 '구글 아이디어(Google Idea)'라는 인트라넷을 적극 활용
 - 아이디어의 발현 통로와 20% Time을 결합시켜 구글 아이디어에 게재된 상당수의 아이디어들은 상품으로 출시
 - ※ 동시 번역, 음성·영상 통화 기능 등을 갖춘 'Google Talk', 개인 맞춤형 홈페이지 'Google Homepage' 등

아. 연결

- 다양성의 연결로 혁신을 가속화한다.
 - 3M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공유 및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프로젝트 관리, 나노테크놀러지, 생명과학, 제품 디자인 등 30여개 이상의 주제와 관련한 모임이 활동 중

- 연구원들의 자체적인 모임인 테크포럼(Tech Forum), 심포지엄, 전시회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을 고려하여 사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부각되고 있음
 - 스티브 잡스는 픽사(Pixar)의 CEO로 재직할 당시, “최고의 회의는 우연히 일어나는 회의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성원들이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
 - Pixar 본사의 중앙에 아트리움(Atrium)이라는 건물을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건물(사무실) 둘러싼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아티스트, 작가, 컴퓨터엔지니어 등 모든 구성원이 서로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유도

가. 개요

- 모바일에서 금융 사업은 최근 전자지갑(eWallet), NFC(Near Field Communication), IAP(In App Purchase) 등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금융이란 아이템은 제조사, 통신사, 서비스 제공사 모두 최대의 관심 대상
- KT가 미디어 콘텐츠와 금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
 - KT는 BC 카드의 대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 사업에 대한 투자와 강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
 - 레드오션화 된 통신시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KT가 선택한 것은 결국 콘텐츠와 금융업임

나. 모바일과 금융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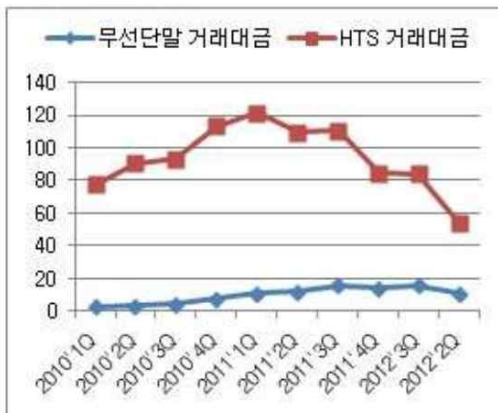
- 현재 모바일 금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주식 트레이딩이 대표적
 - 금융기관과 연계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멤버십 앱, 마일리지 앱, 포인트 앱, OTA 앱, 2CH 보안 앱, 전자지갑 앱, 가계부 앱 등도 금융 관련 모바일 앱이라 할 수 있음
- 금융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시스템들은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며, 실시간 처리와 일괄처리가 공존하며, 복잡한 기간 업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며, 트랜잭션 단위로 서비스가 운영됨

- 금융 분야의 시스템은 일반 기업의 회계, 통계 등의 시스템과는 달라서 해당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짐
- 사업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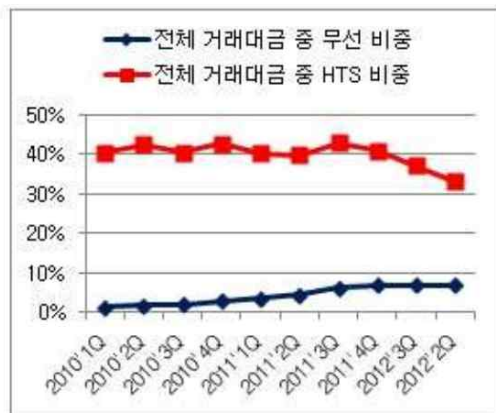
□ 모바일 금융 서비스 중에서도 실시간 처리가 매우 중요하고, 고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는 모바일 증권서비스는 가장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며 시스템 구성에 보수적임

- 모바일 증권 서비스 중, 최근 MTS(Mobile Trading System, 모바일 주식거래 시스템) 사용률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전체 거래 대금 중에 PC기반 HTS(Home Trading System, 가정용 주식거래 시스템)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MTS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2사분기말에는 거래 대금 기준으로 11조2천억으로 약 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거래대금추이 및 전체 거래대금 대비 비중 추이



(단위:조원)
자료: 한국거래소



(단위:%)

-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확산되면서, PC 기반의 주식거래에서 모바일 기반의 주식거래로 변화

-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도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공감대가 이루어짐
 - 파편화된 모바일 OS 환경을 접해본 관리자들은 그 끔찍한 개발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

다. 모바일 금융 시스템에 플랫폼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안

-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은 시스템적인 측면과 서비스적인 측면임
- 시스템 측면 - 플랫폼 도입을 통한 확장성, 안전성을 확보
 -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MEAP(Mobil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에 대한 적용 시점임
 - MEAP는 다수의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며, 다양한 단말기와 모바일 OS에 대응하고, 다양한 앱들을 공유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
 - MEAP를 도입하는 이유는 재활용성, 호환성, 재사용성 때문임
 - 결국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급변하는 현재 ICT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임
- 시스템 측면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및 개발방법론
 - 최근에 고민해야 할 부분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임
 - 보안과 안정성의 대한 신뢰 문제로 금융기관들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하게 되는 시점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는 추세라 언젠가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교체가 필요

- 서비스 측면 - 스핀오프(Spin-Off) 앱 전략
 - 스핀오프 앱 전략은 메인이 되는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같은 브랜드로 다른 테마와 컨셉을 가진 앱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서비스 하는 전략
 - 기존 메인 앱에 부가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은 기존의 제한된 기능과 UI/UX를 통일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획기적인 서비스를 추가하기에는 많은 이슈가 발생

- 서비스 측면 - 소셜 큐레이션 전략
 - 모바일 증권 서비스의 소셜웹 기능 활성화가 필요
 - 대부분의 증권서비스는 사용자 유입을 위한 단순 소셜 포스팅 기능만을 제공
 - 오픈 소셜 ID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증권 또는 금융에 특화된 소셜웹 서비스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치를 재생산 필요

- 서비스 측면 - 오픈 API 전략
 - 증권 서비스에서 시세정보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님
 - 모든 서비스 플랫폼이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번째 관문으로 생각하는 오픈 API 전략이기 때문에 공개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들 (지연 시세와 같은)부터라도 오픈 API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플랫폼과 혁신

-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지만, 플랫폼 도입이 이루어진 뒤에 더 다양한 혁신이 가능
 - 모바일 금융 플랫폼도 이제는 개방형으로 바뀌어야만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 가능함

VI. 월간 SW 이슈 분석



가. 개요

- 구글의 구글 안경(Google Glasses) 시연 및 각 사의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심 증가
 - MS, 애플, 올림푸스도 스마트 안경에 관심, 웨어러블 단말 경쟁 시대 예고

나. 구글의 '구글 안경' 시연

- '구글 안경' 프로토타입 공개
 - '프로젝트 글래스(Project Glasses)'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본 단말은 소형 스크린과 카메라, 안드로이드 OS 기반 프로세서, 메모리, GPS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인터넷 접속도 가능함
 - 통화연결 및 메시지 전송은 물론 정보 검색, 동영상 채팅, 사진 촬영, 날씨 및 위치 정보 확인, 일정 관리 등 기존의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음성인식을 통해 손을 쓰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으며, 스크린을 통한 정보 표시도 가능
 - 구글은 2013년에 '프로젝트 글래스'의 익스플로러 에디션(Explorer Edition)을 1,500달러에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
 - 개발자들로부터 얻은 참신한 아이디어 및 솔루션을 추가해 2014년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에 선보일 계획

구글 '프로젝트 글래스'의 외관과 서비스 화면



자료: Wild Frog Studio, The Washington Post (2012. 07)

- MS, 애플, 올림푸스도 스마트 안경에 관심, 웨어러블 단말 경쟁시대 예고
 - MS도 2014년 출시를 목표로 스마트 안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 유출을 통해 알려짐
 - 포르탈레자(Fortaleza)라는 코드명으로 개발되고 있는 MS의 스마트 안경은 4G 및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한 증강현실 구현 스마트 안경이라는 점에서 구글의 '프로젝트 글래스'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음
 - 그러나 MS의 스마트 안경은 차세대 콘솔게임기 'X박스 720' 및 동작인식 게임기 '키넥트'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용 단말로 출시될 전망
 - 최근 애플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스마트 안경 구현을 위한 기술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됨
 -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주변처리'라는 명칭으로 출원된 애플의 특허는 헤드마운트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자의 눈앞에 장착된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기술임
 - 일본 제조업체 올림푸스도 구글에 이어 웨어러블 스마트 안경의 프로토타입 MEG 4.0'을 공개

- 올림푸스측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MEG 4.0'이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무게가 30그램에 불과하고 디스플레이가 일반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

□ 주요 시장 조사 기관의 웨어러블 단말 경쟁 시대 전망

- 시장조사 기관 무어 인사이트 & 스트레티지(Moor Insight & Strategy)는 구글 안경의 탄생을 스마트 단말기 생태계 확장의 시발점으로 평가하며, 향후 5년 내에 안경을 비롯해 시계나 장신구에 컴퓨터가 융합된 다양한 종류의 웨어러블 단말기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함
- 포레스터리서치(Forester Research)는 3년 내에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이 모든 IT제품 개발 전략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차세대 주류 IT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주장

가. 개요

-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은 현재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등장
 - 최근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클라우드 컴퓨팅, M2M, 스마트TV, ICT 중심의 융합산업 등은 기술혁신을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기회의 창출을 요구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유연성 및 효과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하면서, HW 중심의 네트워크를 SW 기반으로 전환시켜 기존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등장
 - SDN과 오픈플로우 표준 제정과 도입 촉진을 목표로 결성된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는 생태계 형성을 강점으로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 ※ ONF는 기존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라, Deutsche Telekom, Facebook, Google, MS, Verizon, Yahoo 등 수요자 중심으로 이사회 멤버(Board Members)가 구성. 신규 SW 업체 및 우리나라의 SKT, KT, 삼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참여하는 등 70여 개의 회원사들이 활동

ONF 이사회 현황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07)

나. SDN의 등장배경

-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필요성 대두
 - 트래픽 패턴의 변화, IT의 소비자화(consumerization of IT: 소비 대중이 주도하는 IT변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 빅데이터 등 네트워크 용량 확대 및 민첩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 현재 네트워킹 기술의 한계점
 - 현재 네트워크 시장의 요구사항을 전통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개별 프로토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트래픽,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요구 변화에 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네트워크의 복잡도는 점점 늘어나 IT 부서가 일관성 있는 접근, 보안, QoS 보장 및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함
 - 최근 데이터센터 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기존 네트워크 구조로는 규모 확대가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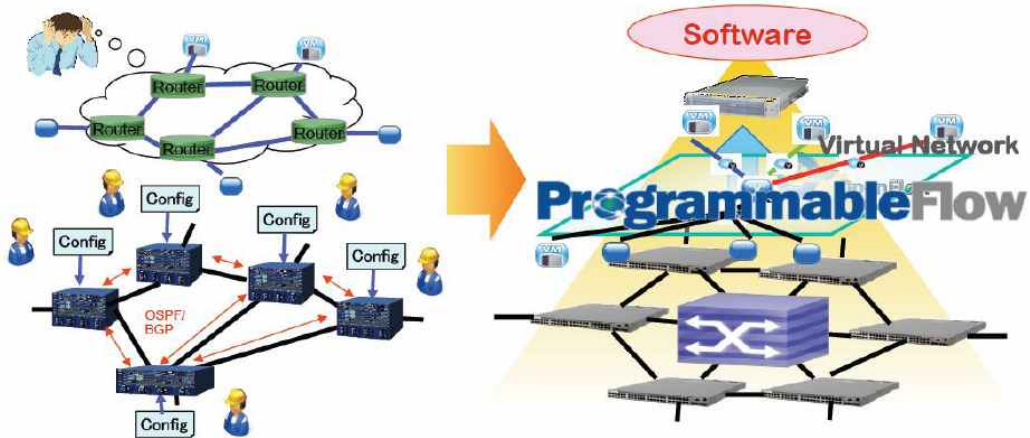
다. SDN

- SDN의 정의
 - SW 정의 네트워킹(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은 네트워크 제어기능이 패킷 포워딩과 분리되어 직접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
 - 과거에는 개별 네트워크 장비에서의 제어기능이 HW에서 분리되지 않았지만 SDN에서는 접근 가능한 컴퓨팅 장치로 제어 영역이 분리되어 컴퓨팅장치로 이주
 -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기능이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SW 기반의 SDN 컨트롤러에 집중, 네트워크는 하나의 논리적 스위치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수천 가지 이상의 프로토콜 표준을 이해하고 처리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SDN 컨트롤러를 제어함으로써 SDN은 네트워크 장비를 단순화시키며, 네트워크 운영자 및 관리자는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에서 수동적인 코드라인의 입력을 통해 설정하는 것보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보다 단순화하여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음

기존 네트워크 구조와 SDN 아키텍처의 비교

Distributed Autonomous Network Software Defined Network



자료: ONF Seminar (2012.3)

□ OpenFlow의 이해

- OpenFlow는 SDN 아키텍처의 제어계층(Control layer)과 전달계층(Forwarding layer) 사이에 정의된 최초의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의 패킷 전달기능(Forwarding plane)에 직접 접속하여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줌
 - OpenFlow 프로토콜은 SDN의 핵심요소로서 현재 네트워크 장비의 전달기능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화된 SDN 프로토콜

라. SDN 도입에 따른 효과

- 높은 대역폭과 최신 애플리케이션의 역동성 등에 대응하고, 계속 변하는 비즈니스 수요(needs)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며, 운영 및 관리상의 복잡성을 감소
 - 다수의 장비공급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중앙집중화된 제어가 가능
 - SDN 컨트롤 소프트웨어는 스위치, 라우터, 가상 스위치 등 모든 벤더의 OpenFlow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할 수 있음
 - 자동화를 통한 복잡성이 감소
 - OpenFlow 기반 SDN은 유연성 있는 네트워크 자동화와 관리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공해서 아직까지 수동으로 작업하는 많은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해줌. 운용상의 간접비를 줄이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 제고
 - 부서에게 빠른 시간 내에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네트워크 역량을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 네트워크 신뢰성과 보안성의 증가 및 사용자 경험 향상

마. SDN 발전을 위한 과제

- IT 인프라를 혁신할 핵심기술로, 적극적인 R&D 투자가 필요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을 위한 SDN 공통기술 개발, NOS 및 응용 기술 확보, 대학·의료·금융·데이터센터 등 시장별로 특화된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 및 적용, 컴퓨터 SW 기술 분야와의 협업 필요